

현안과 과제

-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목 차

■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관리물가 작성 방법	2
3. 관리물가 분석 및 전망	4
4. 시사점	6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 개 요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5.2%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물가 장기화 요인 중 하나로 관리물가가 주목받고 있어 이하 본 고에서는 소비자물가 내에서 관리물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관리물가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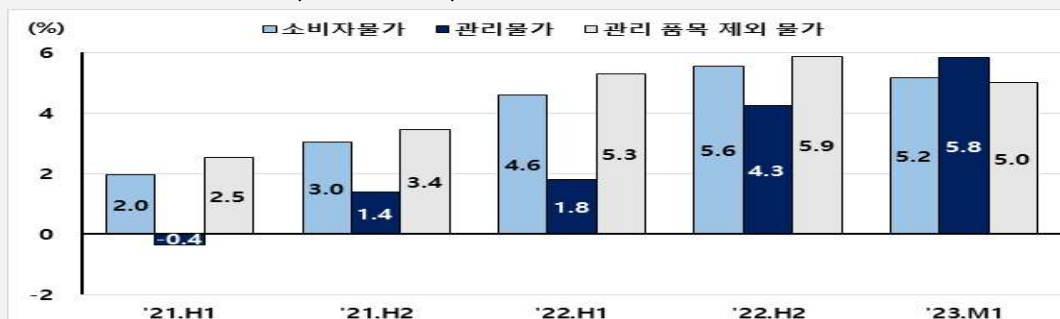
① 관리 품목

관리 품목은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리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458개 중 40개로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소비자물가지수 내 비중은 약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② 관리물가 계산

품목별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관리물가상승률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였다. 관리 품목의 가격지수와 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지수를 각각 가중평균하여 관리물가지수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산출했다. 이처럼 작성된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월별 물가상승률을 계산했다. 관리물가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한 후 2023년 1월에는 5.8%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다. 한편,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은 역시 2021년부터 상승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폭 둔화하는 모습이다.

< 소비자물가, 관리물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 비교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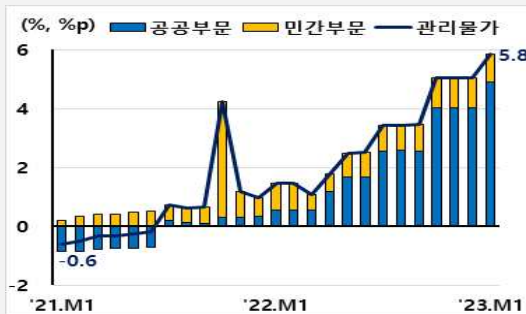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관리물가 분석 및 전망

① 분석 결과

관리물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높은 관리물가상승률은 전기료, 도시가스 가격 등과 같은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 급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물가상승률은 비록 가중치는 낮지만 주로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다. 2021년 상반기 마이너스 상승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상승세 등 관리물가상승률은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관리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주요 품목별 관리물가 기여도 >

품목	'21	'22	'23.M1
전기료	-0.04	1.00	2.38
도시가스	-0.34	0.95	2.15
보험서비스료	0.39	0.66	0.61
지역난방비	-0.01	0.08	0.23
외래진료비	0.18	0.23	0.18
병원검사료	-0.13	-0.20	-0.12
유치원납입금	-0.07	-0.15	-0.16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② 2023년 상반기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관리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전체 물가 불안 현상의 완화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높은 관리물가상승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1.1%p에 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 5.0%에서 5.2%로 반등하였다. 향후에도 관리물가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다.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소비자물가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정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 재반등 시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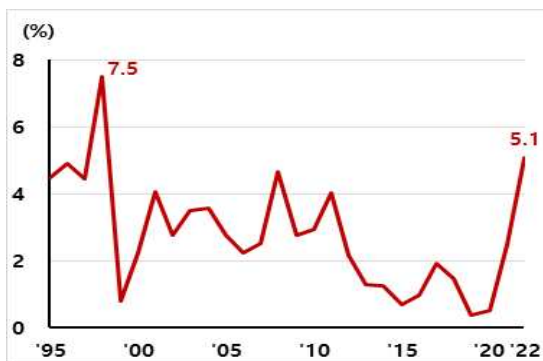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정 현상이 커지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물가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관리 품목 중 전기료, 도시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예측력 개선 및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확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1. 개요

-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지속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와 같은 고물가 흐름은 지속되는 중
 - 2021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률을 지속한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상승하며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5.2%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5%대의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최근 고물가 장기화 요인 중 하나로 관리물가가 주목받고 있어 이하 본 고에서는 소비자물가 내에서 관리물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리물가란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
 - 지난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한 수요 측 요인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공급 측 요인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원인이 관리물가에 있다고 판단

<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대비 기준.

< 월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기준으로 수요 측 요인과 비수요 측 요인을 보임.1)

1) 오강현 외 5인(2023), “물가 둔화 흐름 점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No.2023-2.

2. 관리물가 작성 방법²⁾

① 관리 품목

- 관리 품목은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관리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458개 중 40개로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품목은 14개로 전기료, 도시가스, 담배 등이 이에 해당
 - 민간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품목은 26개로 휴대전화료,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이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 내 관리 품목의 비중은 약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
 -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내 관리 품목의 비중은 가중치 기준 19.85%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 비중인 21.7%보다 약 1.9%p 낮음
 - 이는 일부 품목의 가중치가 감소하고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무상화가 확대된 품목이 탈락한 영향
 - 하지만 여전히 관리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관리 품목 >

구분	공급 주체	소비자물가지수 내 비중	품목
관리 품목 (40개)	공공부문 (14개)	5.75%	전기료, 도시가스, 담배,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철도료, 국공립대학교납입금, 도로통행료, 지역난방비, 열차료 등
	민간부문 (26개)	14.1%	휴대전화료,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사립대학교납입금, 보험서비스료, 시내버스료, 치과진료비, 치과보철료, 조제약, 인터넷이용료 등

자료 : 통계청.

주 : 소비자물가지수 내 비중은 가중치 기준.

²⁾ 관리물가의 정의, 구성 품목, 구분 기준 등은 이병록·노현주(2020),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BOK 이슈노트 No.2020-16. 참조.

② 관리물가 계산

○ 품목별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관리물가상승률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을 계산

- 관리 품목의 가격지수와 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지수를 각각 가중평균하여 관리물가지수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 작성

· 40개 관리 품목의 가격지수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관리물가지수 작성

$$\frac{(\text{관리 품목 } i \text{ 가격지수} \times \text{관리 품목 } i \text{ 가중치}) \text{의 합}}{\text{관리 품목 가중치의 합}} = \text{관리물가지수}$$

·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8개 품목의 가격지수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 작성

· 다만,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가격지수와 가중치가 갱신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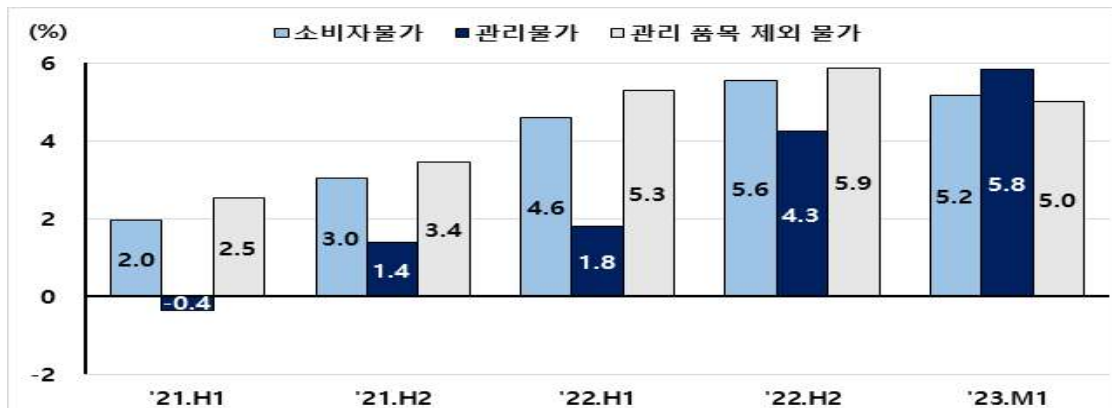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관리물가지수 및 관리 품목 제외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월별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계산

· 관리물가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한 후 상승세를 지속

· 2022년 하반기에는 평균 4.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5.8%까지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 한편,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은 2021년부터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둔화하는 모습

< 소비자물가, 관리물가,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 비교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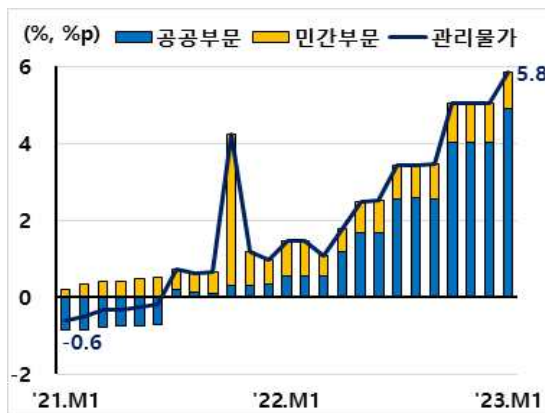
3. 관리물가 분석 및 전망

① 분석 결과

○ 관리물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높은 관리물가상승률은 공공부
문 품목의 가격변동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관리물가상승률은 주로 공공부문 품목의 가격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
 - 공공부문 품목의 낮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상
승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높은 상승세 등 관리물가상승률은 공공부
문 품목의 가격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 시점마다 계단식
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큼
- 최근의 관리물가 상승세는 공공부문 품목 중에서도 전기료, 도시가스 등이 급
등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품목 중 전기료 및 도시가스의 관리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1월 각각 2.38%p, 2.15%p로 관리물가 상승세의 대부분을 설명
 - 민간부문 품목 중에서는 보험서비스료의 기여도가 0.61%p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남
 - 한편, 민간부문 중 유치원납입금 및 병원검사료의 관리물가 기여도는 1월
각각 -0.16%p, -0.12%p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

< 관리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주요 품목별 관리물가 기여도 >

품목	(단위: %p)		
	'21	'22	'23.M1
전기료	-0.04	1.00	2.38
도시가스	-0.34	0.95	2.15
보험서비스료	0.39	0.66	0.61
지역난방비	-0.01	0.08	0.23
외래진료비	0.18	0.23	0.18
병원검사료	-0.13	-0.20	-0.12
유치원납입금	-0.07	-0.15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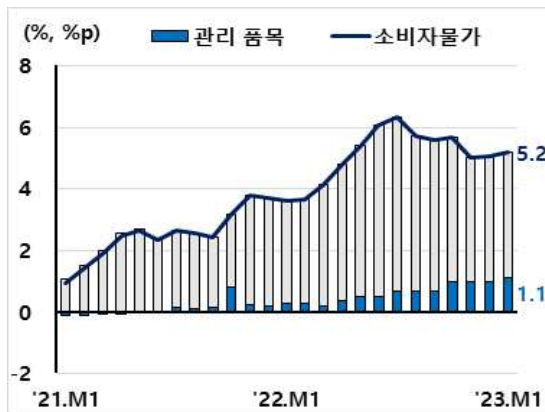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② 2023년 상반기 전망

○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관리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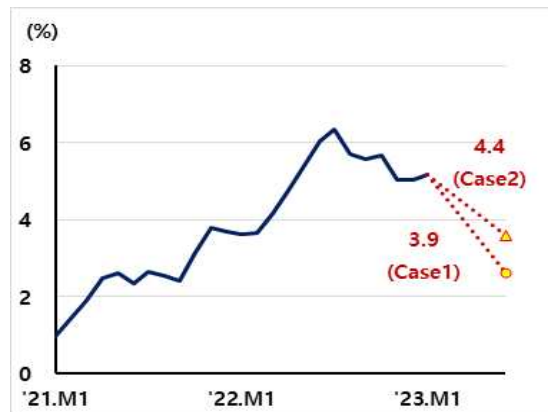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물가의 높은 상승세로 소비자물가도 상승세 지속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공부문 관리 품목의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또한 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
 - 특히, 1월에는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1.1%p에 달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 5.0%에서 5.2%로 반등
 - 2021년에 관리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제한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³⁾
- 향후에도 관리물가의 상승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다
 -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 안정되고 있는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 제외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경우 소비자물가의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관리 품목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 2) 전망치는 2023년 상반기 평균값으로 Case1은 관리물가 및 국제상품가격 현 추세 유지시, Case2는 관리물가 및 국제상품가격 불안 재현시 전망치.

3) 2021년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균 기여도는 0.1%p임.

4. 시사점

- 최근 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정 현상이 커지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물가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관리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또한 4%로 반등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물가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타 물가 안정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 품목의 가격 역시 안정화가 필요
- 다만, 인위적인 물가 통제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 동결보다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가격 조정 또는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 분산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 관리물가는 가격안정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현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저물가 기조에는 가격을 인상, 고물가 기조에는 가격을 동결 및 인하하는 등 유연하고 계획적인 대처로 관리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관리 품목 중 전기료, 도시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예측력 개선 및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 최근 관리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전기료, 도시가스 등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 에너지 가격 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관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 비축 확대, 비축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HRI**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